

그래핀 분말 밀도 측정방법 IEC 국제표준 제정

한국 연구진, 그래핀 보관·유통 기준 확립으로 업계 활용도 확대... 글로벌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연구진이 그래핀 분말 밀도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을 공식 제정하며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를 켰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진흥원의 '표준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을 받은 서울여자대학교 이하진 교수팀과 한국나노기술원 박경호 박사 연구진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그래핀 분말 밀도 측정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을 지난날 27일 최종 제정·출판했다고 이날 8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국제표준은 IEC TS 62607-6-35: Graphene-related products-

Density : Free-pouring, tapping and compressing method'로, 그래핀 분말의 겉보기 밀도 및 밀도, 압축 밀도 및 압축률을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핀은 전기·열전도성이 탁월하고 강도가 뛰어난 '꿈의 신소재'로, 전자소자·2차전지·복합재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차세대 핵심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분말 형태의 그래핀은 밀도 정보 부족으로 부피 특성 파악이 어렵고, 품질이 높을수록 부피가 커져 보관·유통 비용이 급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국제표준 확립으로 그래핀 분말의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계는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압축·보관·유통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대량생산·국제 유통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그래핀뿐만 아니라 탄소나노튜브(CNT) 등 유사 소재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아, 한국이 탄소나노소재 국제 유통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국제표

준 제정을 계기로 국산 탄소소재와 응용기술이 해외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시험 인프라 제공과 국제표준 연계 시험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품질 입증과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팀 최웅기 팀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산 그래핀 소재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이 전주원에농협과 손잡고 2025년산 햅배의 첫 베트남 수출길을 열었다.

전주 햅배 베트남 수출 개시

전북농협, 중국산과 '프리미엄 경쟁' 본격화

전북농협이 전주원에농협과 손잡고 2025년산 햅배의 첫 베트남 수출길을 열었다. 8일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전주원에농협 관내 선별장에서 열린 선적식에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강세권 소장 배 공선화 강성열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값진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베트남은 기후 특성상 배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배와 한국산 배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번 전북산 배 수출은 품질과 안전성을 무기로 '프리미엄 과일'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수출되는 전주 배는 총 16.2톤, 약 6천만 원 규모로,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등 주요 도시의 대형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전북농협과 전주원에농협은 앞으로도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 약 200톤규모의 추가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중국산 과일과의 경쟁에서 한층 우월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경 전주원에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출은 농가와 조합이 합심해 거둔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ILP 서비스 기술연결 수요기업 6차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 해소와 혁신적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형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술연결 수요기업 6차 모집에 나섰다. 이번 모집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과 공유·연결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지점·공장·연구소 등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기술 수요나 기술적 애로를 안고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를 통해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맞춤형 매칭을 지원받아 기술 확보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LP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기술 연결을 넘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사업화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맞춤형 연계와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후속 지원으로 기술이전,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RC) 등이 연계될 수 있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모집 기간은 8일부터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종한 단장은 "ILP 서비스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자의 교교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TP, 제2회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 성장 지원 속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논의·네트워크 강화로 실질적 소통의 장 마련

(제)전북테크노파크가 8일, 혁신기업 실무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2회 혁신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차년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였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애로해소센터'가 주목받았다. 애로해소센터는 기술·R&D·특허·노무·마케팅·수출 등 다방면의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기



업이 부담하는 난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맞춤형 플랫폼이다. 현장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전문가 매칭을 통해 풀어내는 이 서비스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그동안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던 인력난, 국제 통상환경 변화, 지역 기업으로서의 구조적 한계 등 고충을 공유했다. 한 실무자는 "형소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문

제들을 하심탄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기업들과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이 큰 소박"이라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성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종한 기업지원단장은 "올해 첫발을 내디딘 혁신기업 육성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장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처음 신설돼 운영 중인 사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 100억 원 이상, 전년도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의 프로그램이다. /오상근 기자

비수도권상의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국가균형발전 위한 세계개편 논의 본격화

비수도권 경제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세계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 김정태 회장(전주상의 회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수도권상공회의소의협의회 제3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창원상의 회장), 윤재호 경북상의협의회 회장(구미상의 회장) 등

비수도권 주요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계개편 연구'의 진행 상황이 공유됐으며,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김진수 경상대 교수와 임상수 조선훈 교수가 공동 수행 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



를 목표로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협의회는 연구 결과와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계 개편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효율적 운영구조·정확한 데이터 관리 '큰 관심'

LX, 우즈벡 고위 공무원 대상 'K-주소' 연수 성료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고위 공무원 3명을 초청, 주소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8일 LX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금천구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가상사무소에서 진행됐다. LX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K-주소체계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은 한국 주소체계의 법·제도, 역사, 유형 등 이론적 토대, 주소개편사업의 성과, 주소 기반 산업서비스 제공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특히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구조와 지적·공간정보와의 정교한 맵핑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또한 연수 기간 중 열린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에도 참석해, 자국 주소체계 개선 방향과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양국 협력의 폭을 넓혔다.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NSD개발과 조 키로프 과장은 "한국의 발전된 주소체계와 효율적인 관리 방식을 직접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K-주소체계는 정확한 위치 기반 행정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난 대응, 물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